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순차적 매개효과*

이 성 호

한양대학교 / 학생

장 유 진[†]

한양대학교 /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하위유형인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20, 30대 성인 4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6.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및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각각 매개하였다. 둘째,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 및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각각 매개하였다. 셋째,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 및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각각 순차적으로 매개하였으나,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한 반면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정서적 외상, 정신화, 적대적 귀인편향, 역기능적 분노표현

* 본 연구는 이성호(2022)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장유진,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02-2220-2614, E-mail: yoojinjang@hanyang.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불특정 대상에게 충동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공격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2022)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분노조절장애가 포함된 습관 및 충동 장애의 진료 건수는 2016년 8,220건에서 2021년 10,980건으로 5년 새 33.58%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 습관 및 충동 장애로 내원한 환자의 연령별 비율은 20대 39%, 30대 18%, 10대 15%, 40대 13%, 50대 8%로 전체 연령대 중 20, 30대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경찰청의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살인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인 경우가 38.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경찰청, 2020). 이처럼 분노는 개인적인 불편감을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으며, 전체 연령대 중 20, 30대가 분노표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볼 때, 20, 30대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분노는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정서로(Averill, 1983) 위기 상황에서 위협을 회피하며 인간의 생존을 도와주는 적응적인 역할을 한다(Lazarus, Kranner, & Folkman, 1980). 분노는 우리가 정한 경계가 침범당했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목표의 진행이 좌절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Greenberg, 2001)이다. 이처럼 분노라는 정서 자체는 자신의 생존을 돕고 자신을 보호하며 목표달성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분노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할 경우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한 분노는 고혈압(Everson,

Goldberg, Kaplan, Julkunen, & Salonen, 1998), 뇌졸중(Everson et al., 1999)과 같은 신체적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살 위험성(Cautin, Overholser, & Goetz, 2001), 아동 및 배우자 폭력(Nomellini & Katz, 1983)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조절되지 않은 과도한 분노는 다양한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는바, 분노라는 정서적 경험 자체보다는 이러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기능적인 혹은 역기능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Spielberger, Jacobs, Russell과 Cranc(1983)은 분노 표현방식을 크게 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로 분류하였다. ‘분노조절(anger-control)’은 분노 유발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여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분노를 일으킨 대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분노표출(anger-out)’은 분노를 유발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분노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격한 행동 및 표정을 통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분노억제(anger-in)’는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말을 하지 않거나 속으로만 비판하며 분노 유발상황을 부정하거나 분노 자체를 없다고 생각하며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분노표현 방식은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행동을 의미하며 기능적 분노표현은 분노조절을 의미한다(Gottlieb, 199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은 신체적, 심리적, 대인관계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부모와의 관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윤명희, 김순혜, 2016), 거부민감성(김유영, 이희경, 2020), 내면화된 수치심(김미림, 홍혜영, 2013; 허유림, 이수림, 2020), 부적응적 완벽주의(윤자영, 정남운, 2020)와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불안정 애착(박용임, 이은경, 2020), 부모-자녀 관계(류유리, 장석진, 2015), 부모-자녀 의사소통(정지연, 2018) 등과 같은 부모와의 관계 요인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은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주는데(Browne & Finkelhor, 1986; Shields & Cicchetti, 1998; Shipman, Edwards, Brown, Swisher, & Jennings, 2005), 특히 아동기 정서적 외상에 해당하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 지지되고 있다(김승미, 김정규, 2021; 문지혜, 박성옥, 2020; 박지수, 김정민, 2020; 조유경, 이지연, 2015; 조한익, 최종환, 2013).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란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통칭하는 것으로(김은정, 김진숙, 2020),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가치감이나 안녕감에 대해 언어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아동에게 모욕적 혹은 비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 방임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 소속감, 돌봄, 지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서적, 심리적 요구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Bernstein et al., 2003).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아동기에 주 양육자인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 경험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성격발달과 분노, 적대감, 불안, 우울 등의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Allen, 2010; Bowlby, 1980;

Browne & Finkelhor, 1986). 또한, 부모는 아동에게 정서표현의 모델 및 강화자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한 정서표현 방식을 학습하기 때문에(Denham, Zoller, & Couchoud, 1994; Kassinove & Tafrate, 2011)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아동이 적절한 분노표현방식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김혜인, 신민섭, 김은정(2012)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적대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경우 정서를 적절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표현 방법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승미, 김정규, 2021; 문지혜, 박성옥, 2020; 박지수, 김정민, 2020; 조유경, 이지연, 2015; 조한익, 최종환, 2013).

한편,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조한익과 최종환(2013), 박지수와 김정민(2020), 문지혜와 박성옥(2020)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유경과 이지연(2015), 김승미와 김정규(2021)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불일치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차원으로 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학대와 방임은 그 특성이 서로 다른데, 학대는 학대 대상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며 이러한 행동에는 시간 제한이 있는 반면, 방임은 방임 대상에게 소극적이며 무관심한 행동을 보이고 이러한 행

동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홍미, 김효진, 2007). 또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서로 다른 기제로 정신병리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김은정과 김진숙(2020)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는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친 반면, 정서적 방임은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을 통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Berzenski(2018)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학대는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을 경유하여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친 것과는 달리, 정서적 방임은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서로 다른 기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하고, 각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듯 많은 선행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성인이 된 시점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어려움에 개입하고자 할 때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다루기보다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이르는 과정을 매개하는 중간 기제를 찾아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순차적 매개 변인으로 선정한 근

거를 변인 간 관련성을 중심으로 제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이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갖는 관련성을 각각 설명한 후,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인과관계를 추론한 근거를 기술하고자 한다.

정신화(mentalization)는 개인의 욕구, 감정, 신념, 동기와 같은 마음 상태를 추론하여 자신과 타인의 마음과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Bateman & Fonagy, 2006). 정신화는 아동기에 부모와 자녀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으로(Bateman & Fonagy, 2012), 아동의 정서를 대변하는 능력을 갖춘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 반응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해주는 것과 관련이 깊는데(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학대받는 환경에서는 양육자에게 반응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자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양육자의 학대행위에 내재된 증오와 잔인함을 인식하는 것은 아동 자신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타인과 자신의 내적 상태를 인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Fonagy et al., 2002). 즉, 애착 관계에서의 외상 경험은 정신화의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Fonagy, Gergely, & Target, 2007). 정서적 외상과 경계선 성격장애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Quek 등(2017)의 연구에서 정서적 외상이 정신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청소년의 정서적 외상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김홍주(2020)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외상이 정신화 결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미루어 보아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영향을 받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신화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정신화의 손상은 타인과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Bateman & Fonagy, 2012; Wallin, 2010). 정신화가 손상되면 정신화 이전 단계인 심리적 동등성 모드(psychic equivalence mode)가 될 수 있는데, 심리적 동등성 모드에서는 타인의 마음,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의 반응을 자신의 내적 경험과 과도하게 동일시하게 되고(Wallin, 2010), 이에 따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한 정신화 이전 단계인 가장 모드(pretend mode)가 되면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상상만으로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거나 확신하게 되면서(Bateman & Fonagy, 2012; Wallin, 2010) 타인의 실제 정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정신화의 손상은 정서 인식에 어려움을 일으킨다.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McFarland & Buehler, 1997; Salovey, Hsee, & Mayer, 1993) 정신화 손상으로 인한 정서 인식의 실패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김찬양과 최한나(2018), 유제근과 송원영(2020)이 수행한 연구에서 정신화가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신화의 손상은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주어 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높은 수준의 정신화는 정서조절을 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 이외에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적대적 귀인편향(hostile attribution bias)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적대적 귀인편향이란 사회적 맥락 단서가 모호하거나 해석하기 힘든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적대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의미한다(Milich & Dodge, 1984). Dodge(1986)는 개인이 사회적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내적 과정인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공격적 행동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추론에 의해서 일어나는데(Dodge, 1986), 적대적 귀인편향은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하여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rick & Dodge, 1994). 실제 Crick과 Dodge(1994)의 연구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은 타인의 의도를 좀 더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적대적 귀인편향의 경향을 보였으며, 메타분석을 수행한 Orobio de Castro, Veerman, Koops, Bosch와 Monshouwer(2002)의 연구에서도 비공격적인 아동에 비해 공격적인 아동은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적대적 귀인편향과 공격성의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며(김가혜, 최은실, 2017; 김은경, 이정숙, 2009b; 박영희, 2017), 학대 경험과 우울 및 분노표현방식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박주연(2010)의 연구에서는 적대적 귀인편향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대적 귀인편향은 부모의 양육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대받은 아동은 사회적 정보를 해석하기 전 단계인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에서 비적대적인

단서보다 적대적인 단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해석을 하게 될 수 있으며(Dodge, Pettit, Bates, & Valente., 1995), 우연과 명분을 가장한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김은경, 이정숙, 2009a). Dodge 등(1995)은 취학 전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초등학생 때의 귀인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김은경과 이정숙(2009a)은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적대적 귀인 편향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Jin, Eagle과 Keat(2008)의 연구 및 박주연(2010)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적대적 귀인편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적대적 귀인편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관계를 가정하였는데, 이는 정신화가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 영향을 받아 비교적 발달 초기에 형성되며(Fonagy et al., 2002) 대인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기저에 있는 신념이나 동기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Bateman & Fonagy, 2006)이기 때문에 귀인(attribution)과 같은 사회적 정보처리 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했기 때문이다. Bateman과 Fonagy(2006)는 빈약한 정신화로 인해 융통성 없는 이해(concrete understanding)가 가장 흔히 나타나며, 융통성 없는 이해로 인해 타인을 이해할 때 의심의 여지없이 타인이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정신화 수준이 높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여유 있게 숙고하며 성

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였다. Bateman과 Fonagy(2006)가 설명한 타인의 행동을 성찰해보지 않고 의심 없이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빈약한 정신화 능력은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적대적 귀인편향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신화가 특정 경험을 다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해주며 인지적 유연성을 높인다는 점을 볼 때(Wallin, 2010), 낮은 정신화 능력이 적대적 귀인편향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김영석과 장유진(2021)은 성인 302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정신화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개념과 특성이 다르며 서로 다른 결과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미비하였는데(김은정, 김진숙, 2020; 홍미, 김효진, 2007; Berzenski,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시점에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여하는 중간 기제를 찾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뿐만 아니라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살펴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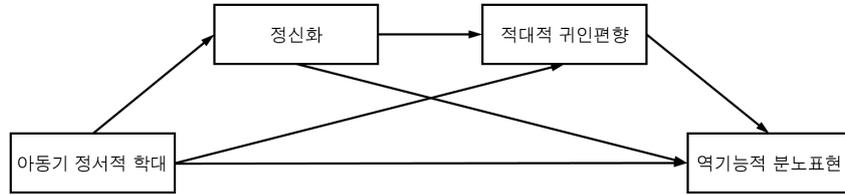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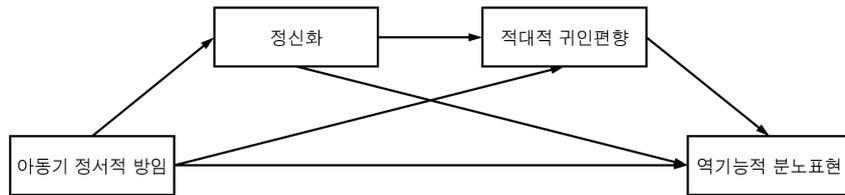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것은 상담 개입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인 아동기 정서적 학대,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둘째,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외상인 아동기 정서적 학대,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셋째,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외상인 아동기 정서적 학대,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그림 1, 그림 2)?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39세까지의 성인을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6월 28일부터 약 2주간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온라인 설문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첫 페이지에 연구의 목적, 응답 내용의 익명성 보장, 자율적 참여의 원칙 등을 설명하였고, 온라인 설문을 완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연구 참여에 동의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기하였다. 설문을 완성하여 제출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송부하였다. 총 498부가 수집되었고 수집된 자료 중 기준 연령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8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44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성별은 전체 440명 중 여자 273명(62.0%), 남자 167명(38.0%)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251명(57.0%), 30대 189명(43.0%)이었다. 직업은 직장인 185명(42.0%), 대학생 163명(37.0%), 취업준비생 65명(14.8%), 기타 16명(3.6%), 자영업자 11명(2.5%)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아동기 정서적 외상 척도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하고 김은정(2010)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정서적 학대(5문항), 정서적 방임(5문항), 성적 학대(5문항), 신체적 학대(5문항), 신체적 방임(5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정서적 외상’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되어 선택적으로 연구되어 왔는데(김은석, 2021; 김은정, 김진숙, 2020; 이소민, 이지연, 2021; 조유경, 이지연, 2015; Berzenski, 2018),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정서적 학대(5문항)와 정서적 방임(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역산 문항이 존재한다. 각 하위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는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예: 멍청이, 똥똥이)’, 정서적 방임은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유경(2006)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정서적 학대 .76, 정서적 방임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82, 정서적 방임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서로 다른 기제로 성인의 정신병리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은정, 김진숙, 2020; Berzenski, 2018)에 근거하여 각각의 점수를 독립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정신화 척도

정신화를 측정하기 위해 Dimitrijević, Hanak, Dimitrijević와 Marjanović(2018)이 개발한 정신화 척도(The Mentalization Scale: Ments)를 이수림과 이문희(201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정신화 척도(Korean Version of The Mentalization Scale: K-Ment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자신에 대한 정신화(6문항), 타인에 대한 정신화(11문항), 정신화 동기(8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역산 문항이 존재한다. 각 하위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정신화는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정신화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알 수 있다’, 정신화 동기는 ‘나는 내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림과 이문희(2018)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이고,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자신에 대한 정신화 .78, 타인에 대한 정신화 .84, 정신화 동기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이며,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자신에 대한 정신화 .83, 타인에 대한 정신화 .85, 정신화 동기 .73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귀인편향 척도

적대적 귀인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Crick(1995)가 개발한 가설적 상황 도구(hypothetical situation instrument)를 김은경(2008)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강영호(2016)가 대학생에 맞게 재수정한 문항을 김영석(2021)이 일반 성인 대상에 맞게 문항 일부를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상황이 제시되며,

각 상황에 대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의도 귀인 문항 1개와 상대가 적대감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적대 귀인 문항 1개를 제시하여 총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지인 두 명이 내 앞을 지나가다 나를 보더니 자기 들끼리 뭐라고 속삭이면서 웃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지인들이 왜 속삭이면서 웃었다고 생각하는지(의도 귀인), 그들이 속삭이면서 웃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적대 귀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한다. 의도 귀인과 적대 귀인을 할 경우 각 2점으로 채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각 1점으로 채점하고 의도 귀인 점수와 적대 귀인 점수를 합산한다. 원척도를 국내 상황과 대상에 맞추어 수정한 김은경(2008)과 강영호(2016)는 의도 귀인과 적대 귀인 점수 각각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나, 척도를 개발한 Crick(1995)은 상대방의 행동을 ‘적대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도와 적대의 문항을 구분하였을 뿐 실제 분석에서는 이를 합산하여 총점만을 사용한 바 있다. 또한 적대적 귀인편향 자체가 타인의 고의성(intentionality)을 가정한 개념(Douglas & Martinko, 2001; Matthews & Norris, 2002; Milich & Dodge, 1984)이기 때문에 총점만을 분석에 사용한 국내 선행연구(김윤희, 장혜인, 2021; 유가람, 박주희, 2019; 이정민, 신용환, 손영우, 2016; 탁언효, 윤영식, 김민정, 이아라, 2022)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에 충실하여 총점만을 분석에 사용한 김영석(2021)의 채점 방식을 따랐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적 귀인편향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0, 3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영석(2021)의 연구에서 보고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였고, 본 연

구에서 측정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분노표현 척도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번안하여 개발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4개 문항으로 특성분노(10문항), 상태분노(10문항), 분노조절(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억제(8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분노조절은 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분류되는데(Gottlieb, 1999),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분류되는 분노표출(8문항), 분노억제(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노표출은 ‘나는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 분노억제는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한 선행연구(김승미, 김정규, 2021; 김해랑, 홍혜영, 2017; 문지혜, 박성욱, 2020; 박지수, 2021; 박지수, 김정민, 2020; 조유경, 이지연, 2015; 조한익, 최종환, 2013)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라는 측정변인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이라는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한다는 선행연구(김승미, 김정규, 2021; 김해랑, 홍혜영, 2017)를 근거로 역기능적 분노표현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내적 일치

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결 과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6.0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개로 지정하고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정규성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야 하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야 한다(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에서 변인의 왜도는 -.23에서 .90, 첨도는 -.70에서 .18 사이의 수치가 산출되어 정규분포 가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각각의 연구 변인은 전체적으로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는 정서적 방임($r = .60, p < .001$), 적대적 귀인편향($r = .26, p < .001$), 역기능적 분노표현($r = .40,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신화($r = -.44, p < .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적 방임은 적대적 귀인편향($r = .25, p < .001$), 역기능적 분노표현($r = .30, p < .001$),

표 1. 측정 변인 간 상관 분석 및 기술통계

변인	1	2	3	4	5
1. 정서적 학대	1				
2. 정서적 방임	.60***	1			
3. 정신화	-.44***	-.47***	1		
4. 적대적 귀인편향	.26***	.25***	-.35***	1	
5. 역기능적 분노표현	.40***	.30***	-.51***	.37***	1
평균	1.71	1.98	3.60	2.68	2.40
표준편차	.68	.78	.53	.41	.52
왜도	.90	.43	.38	.04	-.23
첨도	.15	-.70	-.48	-.32	.18

주. *** $p < .001$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신화($r = -.47, p < .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신화는 적대적 귀인편향($r = -.35, p < .001$), 역기능적 분노표현($r = -.51,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적대적 귀인편향은 역기능적 분노표현($r = .37,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이용하였고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정신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eta = -.435, p < .001$), 정신화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beta = -.408, p < .001$)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사이에서 매개하였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

대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총효과는 $\beta = .403(p < .001)$ 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정신화가 투입되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대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직접효과는 $\beta = .226(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즉,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지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정신화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 2.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신뢰구간		R ²	F
						하한	상한		
정신화	아동기 정서적 학대	-.336	.033	-.435	-10.112***	-.402	-.271	.189	102.252***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학대	.171	.034	.226	5.076***	.105	.238	.297	92.455***
	정신화	-.400	.044	-.408	-9.150***	-.485	-.314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학대	.306	.033	.403	9.225***	.241	.371	.163	85.106***

주. *** $p < .001$

표 3.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구분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정신화 → 역기능적 분노표현	.134	.021	.095	.178

표 4.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신뢰구간		R ²	F
						하한	상한		
정신화	아동기 정서적 방임	-.319	.029	-.471	-11.174***	-.375	-.263	.222	124.867***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방임	.051	.031	.077	1.653	-.010	.112	.261	76.976***
	정신화	-.460	.046	-.470	-10.069***	-.550	-.371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방임	.198	.030	.298	6.539***	.139	.258	.089	42.764***

주. *** $p < .001$

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이용하였고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정신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eta = -.471, p < .001$), 정신화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beta = -.470, p < .001$)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사이에서 매개하였다. 한편,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총효과는 $\beta = .298(p < .001)$ 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정신화가 투입되면서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 = .077(n.s.)$ 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지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구간에서 0을 포

함하지 않았으므로 정신화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이용하였고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적대적 귀인편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eta = .261, p < .001$), 적대적 귀인편향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beta = .280, p < .001$)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사이에서 매개하였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총효과는 $\beta = .403(p < .001)$ 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적대적 귀인편향이 투입되면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

표 5.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구분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 → 정신화 → 역기능적 분노표현	.147	.021	.108	.190

표 6.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신뢰구간		R ²	F
						하한	상한		
적대적 귀인편향	아동기 정서적 학대	.155	.027	.261	5.647***	.101	.208	.068	31.883***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학대	.250	.033	.331	7.630***	.186	.315	.236	67.348***
	적대적 귀인편향	.357	.055	.280	6.456***	.248	.466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학대	.306	.033	.403	9.225***	.241	.371	.163	85.106***

주. *** $p < .001$

표 7.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구분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적대적 귀인편향 → 역기능적 분노표현	.055	.014	.031	.085

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 = .331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즉,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지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이용하였고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적대적 귀인편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eta = .249, p < .001$), 적대적 귀인편향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beta = .311, p < .001$)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사이에서 매개하였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총효과는 $\beta = .298 (p < .001)$ 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적대적 귀인편향이 투입되면서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 = .221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즉,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회

표 8.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신뢰구간		R ²	F
						하한	상한		
적대적 귀인편향	아동기 정서적 방임	.129	.024	.249	5.375***	.082	.177	.062	28.891***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방임	.147	.030	.221	4.939***	.088	.205	.180	47.826***
	적대적 귀인편향	.397	.057	.311	6.948***	.285	.509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방임	.198	.030	.298	6.539***	.139	.258	.089	42.764***

주. *** $p < .001$

표 9.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구분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 → 적대적 귀인편향 → 역기능적 분노표현	.051	.013	.029	.080

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지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정신화, 적대적 귀인편향,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표 10.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순차적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신뢰구간		R ²	F
						하한	상한		
정신화	아동기 정서적 학대	-.336	.033	-.435	-10.112***	-.402	-.271	.189	102.252***
적대적 귀인편향	아동기 정서적 학대	.080	.029	.135	2.730**	.022	.138	.136	34.239***
	정신화	-.222	.038	-.289	-5.846***	-.296	-.147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학대	.152	.033	.200	4.558***	.086	.217	.329	71.235***
	정신화	-.345	.044	-.352	-7.787***	-.433	-.258		
	적대적 귀인편향	.244	.054	.191	4.531***	.138	.350		

주.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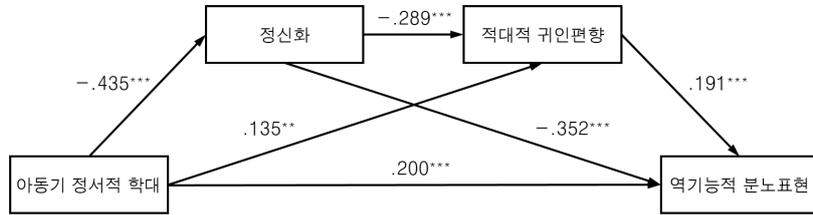


그림 3.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순차적 매개모형 결과

주. 모든 회귀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실선은 유의한 경로; ** $p < .01$, *** $p < .001$

macro의 Model 6번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0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정신화($\beta = -.435, p < .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적대적 귀인편향($\beta = .135, p < .01$)과 역기능적 분노표현($\beta = .200, p < .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신화는 적대적 귀인편향($\beta = -.289, p < .001$)과 역기능적 분노표현($\beta = -.352, p < .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적대적 귀인편향은 역기능적 분노표현($\beta = .191, p < .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총효과는 $\beta = .403(p < .001)$ 이었고, 매개변인인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이 투입되면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 = .200(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즉,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지

표 11.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순차적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구분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총 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역기능적 분노표현	.306	.033	.241	.371
직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역기능적 분노표현	.152	.033	.086	.217
	총 간접효과	.154	.022	.113	.200
간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정신화 → 역기능적 분노표현	.116	.020	.081	.158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적대적 귀인편향 → 역기능적 분노표현	.020	.009	.005	.039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정신화 → 적대적 귀인편향 → 역기능적 분노표현	.018	.005	.009	.030

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우선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정신화를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간접효과($B=.116$, $CI=.081\sim.158$)는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간접효과($B=.020$, $CI=.005\sim.039$)도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순차적 매개효과($B=.018$, $CI=.009\sim.030$)도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정신화가 낮아지고, 감소된 정신화로 인해 적대적 귀인편향이 증가하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 정신화, 적대적 귀인편향,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표 12.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순차적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신뢰구간		R ²	F
						하한	상한		
정신화	아동기 정서적 방임	-.319	.029	-.471	-11.174***	-.375	-.263	.222	124.867***
적대적 귀인편향	아동기 정서적 방임	.057	.026	.109	2.162*	.005	.109	.130	32.660***
	정신화	-.227	.039	-.296	-5.851***	-.304	-.151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방임	.036	.030	.054	1.182	-.024	.096	.299	62.048***
	정신화	-.399	.046	-.407	-8.627***	-.490	-.308		
	적대적 귀인편향	.269	.055	.211	4.906***	.161	.377		

주.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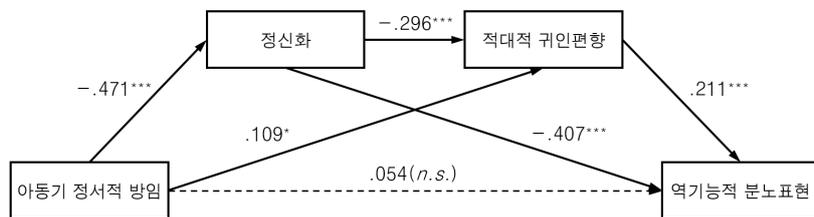


그림 4.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순차적 매개모형 결과

주. 모든 회귀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 $p < .05$, *** $p < .001$, *n.s.*=not significant

macro의 Model 6번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2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정신화($\beta = -.471, p < .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적대적 귀인편향($\beta = .109, p < .05$)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역기능적 분노표현($\beta = .054, n.s.$)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신화는 적대적 귀인편향($\beta = -.296, p < .001$)과 역기능적 분노표현($\beta = -.407, p < .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적대적 귀인편향은 역기능적 분노표현($\beta = .211, p < .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총효과는 $\beta = .298(p < .001)$ 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이 투입되면서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 = .054(n.s.)$ 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지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우선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정신화를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간접효과($B = .127, CI = .093 \sim .168$)는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간접효과($B = .015, CI = .002 \sim .033$)도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순차적 매개효과($B = .020, CI = .010 \sim .032$)도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방임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정신화가 낮아지고, 감소된 정신화로 인해 적대적 귀인편향이 증가하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3.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순차적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구분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총 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 → 역기능적 분노표현	.198	.031	.139	.258
직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 → 역기능적 분노표현	.036	.030	-.024	.096
	총 간접효과	.162	.022	.124	.207
간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 → 정신화 → 역기능적 분노표현	.127	.019	.093	.168
	아동기 정서적 방임 → 적대적 귀인편향 → 역기능적 분노표현	.015	.008	.002	.033
	아동기 정서적 방임 → 정신화 → 적대적 귀인편향 → 역기능적 분노표현	.020	.006	.010	.032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 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하위유형인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개별 매개효과와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아동기 정서적 학대,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신화를 통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외상의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정신화가 낮아지며(김홍주, 2020; Quek et al., 2017), 감소된 정신화가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가져오며(김찬양, 최한나, 2018; 유제근, 송원영, 2020)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증가시킨다(박응임, 이은경, 2020)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문지혜, 박성욱, 2020; 박지수, 김정민, 2020; 조한익, 최종환, 2013)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한편,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신화를 투입했을 때,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신화를 통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문지혜, 박성욱, 2020; 박지수, 김정민, 2020; 조한익, 최종환, 2013)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반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김승미, 김정규, 2021; 조유경, 이지연, 2015)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관점에서 보면 아동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행동을 학습하며(Bandura, 1977), 부모 및 친구 등의 분노표현을 관찰하여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지 학습하는데(Kassinove & Tafrate, 2011), 방임된 환경에서는 부모의 분노표현방식을 관찰하고 모방할 기회가 적어 특정한 분노표현방식을 학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학대받는 환경의 경우 부모의 특정한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특정 분노표현방식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정보처리모형(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s)으로도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서적 방임의 다른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정보처리모형에 따르면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부호화, 해석, 목표 명료화, 반응 탐색 및 생성, 반응 선정, 행동 수행의 6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특정 행동을 하게 된다(Crick & Dodge, 1994). 4번째 단계인 반응 탐색 및 생성 단계에서는 과거 경험 및 장기 기억을 토대로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가능한지 탐색하는데, 방임된 환

경의 경우 부모로부터 특정 정서표현방식을 경험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분노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반응의 개수가 적거나 특정 반응이 우세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방임된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 분노 상황에서 어떤 표현방식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 조유경과 이지연(2015)은 성인 341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가 유의한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조한익과 최종환(2013), 김승미와 김정규(2021)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분노표출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정신화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연결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임을 시사한다. 즉, 아동기 정서적 방임으로 인해 분노를 과도하게 억제하거나 표출하는 내담자에게 정신화를 증진시키는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Hertzmann 등(2016)은 부부를 대상으로 정신화 기반치료(Mentalization-Based Therapy)를 적용했을 때 서로에 대한 분노표현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정신화 기반치료는 정신화를 촉진시켜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 상태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는 치료이다(Bateman & Fonagy, 2006). 개입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내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공감하며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고, 내담자가 처한 특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를 명료화하고,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들을 정신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Bateman & Fonagy, 2013). 즉, 정신화에 초점을 둔 개입은 내담자가 자

신의 정서와 행동의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도록 돕고 상황에 대한 오해석을 줄여 내담자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정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데(McFarland & Buehler, 1997), 정신화 초점적 접근은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도와 분노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방임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적대적 귀인편향이 증가하며(Jin et al., 2008), 적대적 귀인편향이 아동기 학대 경험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박주연, 2010)와 맥을 같이한다. 학대받은 아동은 우연과 명분을 가장한 폭력에 자주 노출되어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추론하기 쉬우며(김은경, 이정숙, 2009a), 적대적 단서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타인에게 적대감을 돌릴 준비 상태를 만들어(Dodge et al., 1995)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적대적 귀인편향이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제이며,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내담자의 치료적

개입에 있어 내담자의 적대적 귀인편향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Hudley와 Graham(1993)은 타인의 의도를 식별하기 위한 역할극 활동,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토론, 모호한 상황을 해석하기 위한 규칙 만들기, 사고와 행동의 인과적 관계 논의하기 등의 개입이 적대적 귀인편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들(Hawkins & Cogle, 2013; Van Bockstaele, Van der Molen, Van Nieuwenhuijzen, & Saleminck, 2020; Vassilopoulos, Brouzos, & Andreou, 2015)은 상대방의 의도가 모호한 상황을 제시한 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적대적 귀인편향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적대적 귀인편향이 관계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마음챙김이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 탁언호 등(2022)의 연구도 적대적 귀인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에 시사점을 준다. 마음챙김(mindfulness)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및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며 비판단적으로 현재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으로(Kabat-Zinn, 1990), 이를 증진시키면 생각과 감정을 과도하게 동일시하여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ishop et al., 2004). 따라서 마음챙김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입은 타인의 의도가 적대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도 내적 경험을 자각하고 수용하며 성찰함으로써 내적 경험에 대한 자동적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수준을 높게 지

각할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증가하며(문지혜, 박성옥, 2020; 박지수, 김정민, 2020; 조한익, 최종환, 2013), 높은 수준의 정서적 외상을 지각할수록 정신화 수준이 감소하고(김홍주, 2020; Quek et al., 2017), 정신화 수준이 낮을수록 적대적 귀인편향이 증가하며(김영석, 장유진, 2021), 적대적 귀인편향이 증가할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증가한다(박주연, 2010)는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정신화, 적대적 귀인편향,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련성을 보여준 선행연구들을 통합하여 4개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개변인인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투입했을 때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있는 내담자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에 초점을 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해서만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표적(target)으로 하는 개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이르는 차별적인 경로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방임과 학대가 어떠한 기제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었으며(김은경, 이정숙, 2009b; 신민정, 최지영, 2015),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인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본 연구는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간접효과만 유의할 뿐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정신화, 적대적 귀인편향,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4가지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고,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과정을 정교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늘어가는데 추세이지만,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정신화가 매개한다는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으며,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이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아동기에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에 초점화된 개입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로만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동기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내담자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신화를 높이거나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순차적으로 다루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 3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성인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가 반복 검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을 특정한 한 시점에서 동시에 측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으나, 횡단적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에 대한 확증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종단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평가도구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설문 참여자가 질문에 대해

방어적으로 응답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경우 현재 기억하는 정도에만 의존해 부정확하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면담, 행동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가설적 상황 도구(강영호, 2016; 김영석, 2021; 김은경, 2008; Crick, 1995)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윤희, 장혜인, 2021; 탁언효 등, 2022; Matthews & Norris, 2002; Tremblay & Belchevski, 2004; Tuente, Bogaerts, & Veling, 2019)에서 빈번히 활용되어 왔지만 타당화 작업을 거친 척도가 아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호 (2016). 대학생의 의도 귀인이 주도적 및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지정서 조절 전략의 중재 효과.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22).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 <https://opendata.hira.or.kr>에서 2022. 4. 12 자료 얻음.
- 경찰청 (2020). 2020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 김가혜, 최은실 (2017). 청소년의 적대적 의도 귀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실행기능의 조절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지, 8(2), 1-19.
- 김미림, 홍혜영 (2013). 중학생의 수치심 경향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135-156.
- 김승미, 김정규 (2021).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5), 3133-3148.
- 김영석 (2021).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석, 장유진 (2021).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42(2), 125-144.
- 김유영, 이희경 (2020).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251-274.
- 김윤희, 장혜인 (2021).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관계적 적대적 귀인편향과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21(1), 1-27.
- 김은경 (2008).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와 인지적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이정숙 (2009a). 학대받은 아동의 표정 인식, 표정해석, 의도귀인에서의 반응편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113-129.
- 김은경, 이정숙 (2009b).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18.
- 김은석 (2021).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대학생의 우울 간의 관계: 자기자비로 조절된

- 자기냉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651-1669.
- 김은정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 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김진숙 (2020).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성인기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 경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3), 23-44.
- 김찬양, 최한나 (2018).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의 관계: 마음챙김과 정신화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7(1), 47-74.
- 김해랑, 홍혜영 (2017).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자기체계손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6), 321-340.
- 김혜인, 신민섭, 김은정 (2012).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정서 인식의 어려움과 정서 표현 억제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353-380.
- 김홍주 (2020). 청소년의 정서적 외상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 성찰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5), 1-35.
- 류유리, 장석진 (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5), 371-384.
- 문지혜, 박성옥 (2020).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2), 169-182.
- 박영희 (2017). 초기 청소년의 적대적 귀인과 반
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 분노반추,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임, 이은경 (2020). 부모와 불안정 애착이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직렬매개 효과. *인간발달연구*, 27(2), 63-81.
- 박주연 (2010). 학대받은 아동의 귀인성향이 우울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적대적 의도귀인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수 (2021).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불안애착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상담연구*, 3(1), 45-58.
- 박지수, 김정민 (2020).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6(2), 191-208.
- 신민정, 최지영 (2015). 아동기 학대와 방임이 우울장애 환자의 성격병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4), 719-738.
- 유가람, 박주희 (2019). 중학생의 적대적 귀인편향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의민감성의 다중가산조절효과. *아동학회지*, 40(4), 79-93.
- 유제근, 송원영 (2020).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0(10), 203-217.
- 윤명희, 김순혜 (2016).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4(5), 541-551.
- 윤자영, 정남운 (2020).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

- 확성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1769-1789.
- 이소민, 이지연 (2021). 성인 여성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체자비와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3), 79-100.
- 이수림, 이문희 (2018). 한국판 정신화 척도 (Korean Version of The Mentalization Scale)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9(5), 117-135.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 신용환, 손영우 (2016). 적대적 귀인이 반생산적 과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악의적 선망, 부정적 호혜성 및 경쟁적 조직목표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4), 491-523.
- 전경구, 한덕웅, 이상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정지연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4(4), 25-44.
- 조유경, 이지연 (2015).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계: 단절 및 거절도식과 심리적 부적응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6(1), 323-343.
- 조한익, 최종환 (2013).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초기 성인기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용서신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9), 125-148.
- 탁언효, 윤영식, 김민정, 이아라 (2022).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편향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의 매개된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9(2), 257-286.
- 허유림, 이수림 (2020). 내면화된 수치심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 분노반추를 통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7(1), 49-71.
- 홍미, 김효진 (2007).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28, 47-59.
- Allen, J. G. (2010). 트라우마의 치유 (권정혜, 김정범, 조용래, 최혜경, 최윤경, 권호인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5에 출판)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1160.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teman, A., & Fonagy, P. (2006).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ractical gu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teman, A., & Fonagy, P. (2012). *Handbook of mentalizing in mental health practi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 Bateman, A., & Fonagy, P. (2013).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Psychoanalytic Inquiry*, 33(6), 595-613.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ernstein, D. P., Stein, J. A., Newcomb, M. D., Walker, E., Poggee, D., & Ahluvalia, T.

-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reening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and Neglect*, 27(2), 169-190.
- Berzanski, S. R. (2018). Distinct emotion regulation skills explain psychopathology and problems in social relationships following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1(2), 483-496.
- Bishop, S. R., Lau, M., Shapiro, S., Carlson, L., Anderson, N. D., Carmody, J., et al. (2004). Mindfulness: A proposed operational definition. *Clinical Psychology: Science & Practice*, 11, 230-241.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New York: Basic Books.
- Browne, A., & Finkelhor, D. (1986).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9(1), 66-77.
- Cautin, R. L., Overholser, J. C., & Goetz, P. (2001). Assessment of mode of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dolescence*, 36(141), 163-170.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2), 313-322.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101.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298-936.
- Dimitrijević, A., Hanak, N., Altaras Dimitrijević, A., & Jolić Marjanović, Z. (2018). The Mentalization Scale (MentS): A self-report measure for the assessment of mentalizing capac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0(3), 268-280.
- Dodge, K. A. (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Vol. 18, pp. 77-125). Hillsdale, NJ: Erlbaum.
- Dodge, K. A., Pettit, G. S., Bates, J. E., & Valente, E. (1995).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patterns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early physical abuse on later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4), 632-643.
- Douglas, S. C., & Martinko, M. J. (2001). Exploring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rediction of workplace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4), 547.
- Everson, S. A., Goldberg, D. E., Kaplan, G. A., Julkunen, J., & Salonen, J. T. (1998). Anger expression and incident hypertension. *Psychosomatic Medicine*, 60(6), 730-735.
- Everson, S. A., Kaplan, G. A., Goldberg, D. E., Lakka, T. A., Sivenius, J., & Salonen, J. T. (1999). Anger expression and incident stroke: prospective evidence from the Kuopio ischemic heart disease study. *Stroke*, 30(3), 523-528.
- Fonagy, P., Gergely, G., & Target, M. (2007). The parent-infant dyad and the construction of the subjective self.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34), 288-328.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London, Routledge.
- Gottlieb, M. M. (1999). *The angry sel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Phoenix, Arizona: Zeig, Tucker & Co. Press.
- Greenberg, L. S. (2001). *Emotion-focused therap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Hawkins, K. A., & Cogle, J. R. (2013). Effects of interpretation training on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reactivity to interpersonal insult. *Behavior Therapy, 44*(3), 479-488.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rtzmann, L., Target, M., Hewison, D., Casey, P., Fearon, P., & Lassri, D. (2016). Mentalization-based therapy for parents in entrenched conflict: A random allocation feasibility study. *Psychotherapy, 53*(4), 388.
- Hudley, C., & Graham, S. (1993). An attributional intervention to reduce peer directed agg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 boys. *Child Development, 64*(1), 124-138.
- Jin, X., Eagle, M., & Keat, J. E. (2008). Hostile attributional bias, early abuse, and social desirability in reporting hostile attributions among Chinese immigrant batterers and nonviolent men. *Violence and Victims, 23*(6), 773-786.
- Kabat-Zinn, J. (1990). *Full catastrophe living. Using the wisdom of your body and mind to face stress, pain, and illness*. New York: Bantam Deli.
- Kassinove, H., & Tafrate, R. C. (2011). 분노 관리하기 (채규만, 김민녀, 위지희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2에 출판)
- Lazarus, R. S., Kranner, A. D., & Folkman, S. (1980). An ethological assessment of emotion. In R. Plutchik, & H. Kellerman (Eds.),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Vol. 1, pp. 198-201). New York: Academic Press.
- Matthews, B. A., & Norris, F. H. (2002). When is believing “seeing”? Hostile attribution bias as a function of self 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1), 1-31.
- McFarland, C., & Buehler, R. (1997). Negative affective states and the motivated retrieval of positive life events: The role of affect acknowled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1), 200-214.
- Milich, R., & Dodge, K. A. (1984).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child psychiatric popula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3), 471-489.
- Nomellini, S., & Katz, R. C. (1983). Effects of anger control training on abusive par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7*(1), 57-67.
- Orobio de Castro, B., Veerman, J. W., Koops, W., Bosch, J. D., & Monshouwer, H. J. (2002). Hostile attribution of intent and aggressive behavior: A meta analysis. *Child Development, 73*(3), 916-934.
- Quek, J., Newman, L. K., Bennett, C., Gordon, M. S., Saeedi, A., & Melvin, G. A.(2017). Reflective func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maltreatment and borderline pathology in adolescent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ld Abuse &*

- Neglect*, 72, 215-226.
- Salovey, P., Hsee, C. H., & Mayer, J. D. (1993).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self-regulation of affect. In D. M. Wegner & J. W. Pennebaker (Eds.), *Handbook of mental control* (pp. 258-277).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381-395.
- Shipman, K., Edwards, A., Brown, A., Swisher, L., & Jennings, E. (2005). Managing emotion in a maltreating context: A pilot study examining chil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9(9), 1015-1029.
- Spielberger, C. D., Krasner, E. C.,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and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 stress, health and psychology*, 89-108. New York: Springer-Verlag.
- Spielberger, C. D., Jacobs, G. A. Russell, S. F.,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2, 161-189.
- Tremblay, P. F., & Belchevski, M. (2004). Did the instigator intend to provoke? A key moderator in the relation between trait agg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0(5), 409-424.
- Tuente, S. K., Bogaerts, S., & Veling, W. (2019).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ggression in adults - 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6, 66-81.
- Van Bockstaele, B., Van der Molen, M. J., Van Nieuwenhuijzen, M., & Saleminck, E. (2020). Modification of hostile attribution bias reduces self-reported reactive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94, 104811.
- Vassilopoulos, S. P., Brouzos, A., & Andreou, E. (2015). A multi-session attribution modific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aggressive behaviour: Changes in attributions, emotional reaction estimates, and self-reported aggression.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43(5), 538-548.
- Wallin, D. J. (2010). 애착과 심리치료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에 출판)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원 고 접 수 일 : 2022. 04. 19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9. 06

게 재 결 정 일 : 2022. 09. 2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Mentalization and Hostile Attribution Bias

Sungho Lee

Hanyang University / Student

Yoojin Jang

Hanyang University /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mentalization and hostile attribution bia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how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childhood emotional neglect, which are subtypes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differ in their effects. For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440 adults aged 20 to 39 yea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PROCESS Macro.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entalization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econd, hostile attribution bias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Third, mentalization and hostile attribution bias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emotional trauma, mentalization, hostile attribution bias,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